

돈 가격을 알아야 돈 번다

2026-02-05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part2_01

Part 2 「시장을 읽는 눈」 1강은 한국 투자자가 매일 들여다봐야 할 신호 체계의 출발점 — 돈의 가격, 즉 금리를 정리한다. 블랙록 CEO 래리 핑크(자본 1경 4천조 원 운용)가 짚은 단 하나의 임계점은 미국 10년물 5%. PER 20의 법칙(이익수익률 $1/20=5\%$) + 2007 글로벌 금융위기 5% 트리거 + 저금리 시대 종언의 심리적 공포 3 이유로 발작 버튼이 작동한다. 미국 5% / 한국 4.5% / 원화 환율 1,500~1,600원이 빨간불 임계점. 한국은 High Beta 3 약점(수출 의존도·가계부채·외국인 ATM)으로 미국보다 0.5% 낮은 임계점에서 흔들리며, 환율→국채→주식→부동산(1년 시차) 순서로 위험이 도달한다.

01 핵심 골격

- 1 돈의 가격 = 금리** — 시장 금리는 자산 가격에 작동하는 중력.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 자산이 중력을 못 이기고 하락. 자산이 상승할 동력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 둘 중 하나여야 한다.
- 2 연준의 입(2년물) vs 시장의 뇌(10년물)** — 정책 발표보다 시장의 미세한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기준선. 미국 회사채 + 30년 주담대가 모두 10년물에 연동.
- 3 5% 발작 버튼 3 이유** — 수학적(PER 20 → 이익수익률 5% → 무위험 국채로 자금 이동) + 역사적(2007 글로벌 금융위기 5% 트리거) + 래리 핑크식(저금리 시대 종언 심리적 공포). PER이 25·30·35 배로 오르면 발작 버튼이 5.5%·6%로 이동 가능.
- 4 한국은 High Beta** — 수출 의존도·거대 가계부채·외국인 ATM 3 약점으로 미국 금리 충격에 더 빠르게·크게 반응. 위험 도달 순서는 환율(카나리아) → 국채 → 주식 → 부동산(1년 시차). 한국 임계점이 미국보다 0.5% 낮은 이유는 기축통화 차이 + 잠재성장률 격차 + 통화 위험.
- 5 신호등 룰북** — 미국 10년물 3.5~4.3%(초록) / 4.5%(노란) / 5.0%(빨강). 한국 10년물 3.5%(안정) / 4.0%(경고) / 4.3~4.5%(위기). 원화 환율 1,500~1,600원이 빨간불. 매일 들여다볼 단순 룰북. '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 위기는 기회'.

02 최신 지표 보강

래리 핑크 5% 명제 — 2023~2026 일관 (강의 § 1 시간 연장)

Bloomberg/Fortune 2023-09 → CNBC 2026-01 동일 명제. '5~5.5% 도달 시 주식 시장 충격 + 재평가 강제'

회차가 인용한 2026-01-15 CNBC 발언은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일관된 명제의 연장선. 임베디드 인플레이션 + 부채 관리 우려를 일관 강조. 자본 시장 핵심 인물의 2년 반째 동일 진단으로 회차 메시지에 추가 무게.

출처 · bloomberg.com

S&P 500 Shiller CAPE 40 도달 (강의 § 6.1 각도 확장)

2026-05 CAPE 약 40.11 / Forward P/E 21~22배 / Shiller Excess CAPE Yield 1.42 (역사 평균 ~4)

회차의 PER 20 → 5% 발작 버튼 명제의 시점 검증. 회차가 짚은 'PER 25·30·35로 오르면 발작 버튼이 5.5%·6%로 이동' 흐름은 이미 본격 진행 중. CAPE 40은 닷컴 버블·2021~2022 수준에 근접. PER 정상화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 동일 5% 도달은 더 큰 충격을 부를 수 있음.

출처 · multpl.com

한국 10년물 노란불 직전 (강의 § 11 검증·반박)

2026-05-04 한국 10년물 3.91% (2023-11 이래 최고, YoY +1.31%p)

회차의 한국 신호등(3.5% 안정 / 4.0% 경고 / 4.3~4.5% 위기) 회차 시점 검증. 노란불 4.0% 직전까지 도달. 회차가 짚은 한국 국고채 임계점이 단순 이론이 아니라 회차 시점 직후의 실제 시장 데이터로 작동 중.

출처 · tradingeconomics.com

원화 환율 노란불 직전 (강의 § 13 사례 후속)

2026 mid-year USD/KRW 1,375 → 연말 1,400 전망 (BofA·ING). 빨간불 1,500~1,600 미도달

회차의 빨간불 임계점 1,500~1,600원의 회차 시점 후속 데이터. 한국이 2026-04 WGBI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추가됐지만 미·한 금리차 역전 지속이 USD/KRW 상방 압력 유지. 신호등을 매월 들여다보는 흐름이 회차 메시지와 정확히 정합.

출처 · think.ing.com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01 미국 10년물 신호등 매월 관찰 — 강의를 짚은 단순 룰북: 3.5~4.3% 초록 / 4.5% 노란 / 5.0% 빨강. PER 25·30·35배(현 Shiller CAPE 40) 시 발작 버튼이 5.5%·6%로 이동 가능하다는 nuance도 함께 인지.

02 한국 10년물 + 환율 신호등 매월 관찰 — 한국 국고채 4.0%(노란) / 4.3~4.5%(빨강), 원화 환율 1,500~1,600원(빨강). 회차 시점 한국 10년물 3.91% / 환율 1,400원 근처로 노란불 직전 영역 진입.

03 위험 도달 순서 인지 — 환율(카나리아) → 한국 국채 → 주식 → 부동산(최대 1년 시차). 부동산이 늦게 반응하는 시차 자체가 강의의 핵심 가르침 — 부동산이 흔들리면 이미 늦은 신호.

돈의 가격 = 금리

래리 핑크 (블랙록 CEO, 자본주의 대통령)

5% 발작 버튼

미국 10년물 = 시장의 뇌 (Market's Brain)

2년물 = 연준의 입 (Fed's Mouth)

금리 = 자산 가격의 중력

PER 20의 법칙 (이익수익률 = $1/PER = 5\%$)

변동의 방향성 / 상승 속도 / 절대 수준

Fanding @kpunch · part2_01